

정 병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물의 이미지를 통한 심상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임 수 현

물의 이미지를 통한 심상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정 병 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임 수 현

인 준 서

임수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어 상처로 남는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내적 치료를 필요로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치유하며 살거나, 또는 의식에서 잊은채 살기도 한다.

본인 또한 내적인 상처로 인해 치유가 필요했고, 자연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심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으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든지 흙이나 바람, 공기, 물, 빛 등 자연에 대한 정서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물질들은 보통 오감을 통해 지각되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이미지들을 생성시키며 기억되어진다. 무엇보다 자연을 통한 기억들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며 자신의 강한 의지, 인내, 신념 등을 새롭게 만들어 주어 긍정적인 마음과 잠재적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 가운데 물은 사람과 친근하여 깊은 의미를 가진 요소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인에게 있어서 물은 친밀하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자 그 속에서 다양한 변용(變容)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물은 예로부터 생명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물이 가지는 모든 다양한 속성을 근거로 하여 물에 정신적 특성과 의미를 부여해 왔다. 또한 물은 인간이 귀속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 물질로 그 실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양한 물결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체들의 생과 사

를 갖고, 순환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대상이다. 이는 인간을 유지하게 하는 항상성과도 많이 닮아 자아를 투영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어 물결의 반복되는 생성과 소멸은 인간의 감정과도 유사함을 느끼게 한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물 이미지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 아닌 심리적 상징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정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물의 이미지와 함께 보여지는 나비의 형상은 치유의 대상인 자아를 가르키는 매개체로써 이것은 변신과 재생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바라보았고 작품에 나타나는 물의 이미지는 내적 치유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다.

또한 본인은 본 논문에서 작품의 배경, 사용된 주재료의 속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이미지의 형상들을 재조명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새로운 토대로 삼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II. 본론	4
1. 이론적 배경	4
1) 물의 일반적 고찰 및 상징성	4
2) 내적 치유	9
3) 나비의 특징과 상징	14
2. 작품 제작 및 분석	17
1) 작품제작 및 과정	17
2) 작품 분석	22
III. 결론	47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따뜻한 소통, Jacquard Silk, 산성염료, 83×122cm, 2005 22
- 【작품 2】 물결이 일어, Jacquard Silk, 산성염료, 75×100cm, 2005 62
- 【작품 3】 유유히, Jacquard Silk, 산성염료, 구슬장식(Beads),
80×110cm, 2005 8
- 【작품 4】 투영, Jacquard Silk, 산성염료, 구슬장식(Beads),
80×110cm, 2005 3
- 【작품 5】 흐름 속으로, Jacquard Silk, 산성염료, 83×117cm, 2005 43
- 【작품 6】 환기(換氣), Jacquard Silk, 산성염료, 구슬장식(Beads),
95×115cm, 2005 3
- 【작품 7】 소통 II, Jacquard Silk, 산성염료, 93×135cm, 2005 04
- 【작품 8】 고고히 흐르다, Jacquard Silk, 산성염료, 98×132cm, 2005 24
- 【작품 9】 흐름의 공간, Jacquard Silk, 산성염료, 구슬장식(Beads),
95×135cm(4p), 2005 44

도 판 목 차

- 【도판 1】 한은선, <물결치다>, 한지에 먹, 125×139cm×2, 2003
- 【도판 2】 한은선, <물결치다>, 한지에 먹, 129×115cm×2, 2003
- 【도판 3】 김창렬, <물방울>, Ink and oil on canvas, 92×130cm, 1987,
private collection, paris
- 【도판 4】 김창렬, <Reviewing the old learning the new>, Ink and oil on
canvas, 195×160cm, 1979, private collection, Seoul
- 【도판 5】 Claude Monet, <Water Lilies>, Oil on canvas, 87.6×130cm, 1906
- 【도판 6】 Helen Frankenthaler, <Ocean drive west 1>, Acrylic on canvas,
39.5×27.5inches, 1974
- 【도판 7】 남해안의 파도
- 【도판 8】 가츠시카 호쿠사이, <The Great wave of Kanagawa>, 판화종이에
니시키에, 25×37
- 【도판 9】 곽석손, <축제>, 한지에 분채, 162×130cm, 2004
- 【도판 10】 꼬리 명주 나비
- 【도판 11】 사향 제비 나비
- 【도판 12】 제일 줄 나비

I . 서 론

1. 연구 목적

자연은 모든 대상과 연관되어 끊임없이 순환하는 역동적인 유기체이다.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나 삶을 영위하고 인식하며, 자연에 변화를 일으키며 순응하는 존재로 자연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살아가며 마음속에서 그린 감동을 표현하여 인간정신의 고양된 영혼을 예술로써 발산한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하여도 그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없으며 자연이 예술가의 심상을 거쳐 형상화 될 때에야 비로소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의 미의식, 예술 활동의 모태가 되어 자연을 생존케 하며 인간은 자연에 친숙하기를 즐겨했고 생활 속에서 미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은 모든 예술의 근원이며 자연을 토대로 창조된 예술은 넓은 의미로 또 하나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¹⁾

자연의 속성은 통일되고 통합적이며 연속적이고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속성과도 많은 부분 연결 되어있어 공감을 이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긴장을 완화하고 균형, 용인, 평안함 등의 느낌을 주는데 기여한다. 자연의 본질적인 요소 중의 하나인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써 인간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폭 넓은 정신세계를 탐구하게 하는 기반으로 인식 되어져 왔다.

1) 김수정, “자연물에 의한 심상적 표현연구”, 석사학위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3

물은 물리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잠자는 듯한 고요한물, 정화하는 의미의 물, 꿈을 꾸거나 꿈을 담은 물과 같이 심리적인 측면을 함유하며, 무수한 비밀의 세계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때로는 나 자신을 삼킬 듯한 두려움을 가진 존재, 또는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포근한 존재로의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또다시 물은 세상의 만물을 감싸는 듯한 포용력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포근함과 안락한 느낌을 더 많이 준다. 또한 바슐라르는 ‘요나 콤플렉스’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태반에 있을 때 무의식중에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생기며 그것으로 안온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을 상상력의 궁극적인 것으로 일컫는데 이는 인간이 물에 대해 근원성을 느끼며, 그것은 인간에게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말하였다.

강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자연이 주는 정신성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의 노장(老莊) 사상에서는 물을 포함한 자연을 초속(超俗)적인 세계로 여기고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정신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닌 정신세계의 표현수단이자 명상의 대상이며 정신세계로 향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흐르는 물이나, 얼굴이 비추어진 물을 바라보며 자아성찰의 계기를 갖는다면, 노장사상에서와 같이 정신적 성숙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연적 속성인 물의 광대한 흐름에서 오는 정신적인 느낌과 정서적인 면을 개인의 경험과 상상력을 가지고 내적 치유로 연결시켜 자연을 통해 이루어진 내적 치유를 이미지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조선영, “물에 대한 시적심상의 회화적 표현”, 석사학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2. 연구 내용 및 방법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본인의 내적 치유로서 물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물의 특성과 유형을, 문헌을 통하여 인지하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물이 갖는 일반적 이미지와 그것이 갖는 상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내적치유의 일반적 이해를 통하여 정의를 내려 보고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본인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나비의 특징과 일반적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며 본인의 작품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상징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물의 이미지에 대한 작품제작 과정을 통하여 치유로써의 물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였는지 표현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물결의 형태로 곡선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부드러운 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위해 활기찬 곡선과 뿌리기 기법, 드라이 터치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또, 물결의 흐르는 이미지와 밀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카드 실크를 사용하였다. 색채는 원색과 중간 톤의 색을 주로이용하고 때로는 보색을 사용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Ⅱ .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물의 일반적 고찰 및 상징성

(1) 일반적 고찰

지구상의 수많은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고 또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물이다. 자연 과학적 정의에 따르면, 물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가진 물질로서 상온에서는 색, 냄새, 맛이 없는 액체이며 지구의 지반이 형성된 이래 자연계에서 세 가지 형태 즉,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로 모든 동물의 세포와 식물 조직, 광물의 결정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³⁾ 그러나 실제로 순수한 물은 자연계에 존재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물은 강물, 호수, 바다, 우물, 폭포, 물방울, 비, 안개, 눈, 얼음, 빙원, 구름, 우유, 피, 수액(樹液)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에 대한 물질성은 액체이다. 그러나 물이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나타나면서 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달라진다. 물은 그 정해진 모양이 따로 없다. 둥글게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며 낮은 곳을 향해 흘러내리거나 떨어진다. 또한 젖어 스며들기도 하고 모이며 일정한 부피를 가지되 그 고유한 형태를 가질 수 없어 그것이 존재 하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 물리적 한계와 형태가 결정된다. 이러한 물의 무형성은 실체를 구체화 하기는 어렵지만, 반면에 그 무형의 신비함으로

3) 동아 세계 대백과 사전, 제 12권, (동아 출판사) 1983, p.431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 주기도 한다. 물은 움직임이 있는 독특한 반사체로서 이어진 곳이 없는 연속일체인 물체이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⁴⁾는 물의 반사성에 대하여 “반사된 세계의 아름다움 때문에 호수, 연못, 잠자는 물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상력을 일깨운다”⁵⁾라고 하여 물의 반사성으로 인한 우리의 상상력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또한 물은 색채가 없는 투명한 물질로서 맑음 그 자체이다.

이러한 투명한 맑음은 주변 환경의 색채를 그대로 반영하여 쉽게 조화를 이루며, 깨끗하게 정화 시켜주는 요소이다. 그 맑음은 빛을 투과 시키는 동시에 빛의 굴절에 의한 반사를 일으킨다. 이러한 특징은 물체의 형태를 선명히 보이게 한다. 이렇듯 물의 순수성은 우리 인간에게 깨끗함인 정화(淨化)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물은 다양성, 융통성, 포용성, 용해성 등을 가지고 있다. 즉, 다른 물질과 달리 온도 상황에 따라 액체, 기체, 고체로 변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할 줄 아는 융통성도 있다. 또, 어떠한 물질이라도 들어오는 대로 말없이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지녔으며, 필요하다면 돌이든, 바위든, 어떠한 물질이라도 용해시키는 힘을 지닌 물은 여러 형태의 다양성과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다.

물은 이처럼 여러 가지 형상의 물질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며,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안개가 되어 위로 올라가며, 비가 되어 떨어지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의 순환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물질성이 물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다.

4)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프랑스의 과학철학자.

5)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김 현, <몽상시학>, 홍익신서, 1978, p.221

(2) 상징성

물이 가지는 이미지들은 물에 관한 수많은 상징을 만들어 낸다.

물은 수소와 산소의 분자 결합을 넘어 그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⁶⁾ 수세기에 걸쳐 물은 그 상징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속성을 통하여 정신적인 생각들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매개체가 된다. 물을 통해 정신적인 교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 상상력은 존재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원초적이고 영원한 것을 존재 안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상상력은 외계의 대상의 이미지를 받아들여 스스로 궁극적, 이상적인 것으로 삼고 있는 상태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물의 물리적 속성을 뛰어 넘어 무한한 정신세계의 장으로 들어 갈수 있는 것이며 물의 속성을 통하여 느껴지는 시적인 이미지가 물과 인간과의 정신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물은 표면적인 이미지 밑에 심화된 이미지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공감은 스스로의 명상 속에서 바로 경험된다. 물은 심연의 깊이와 표면의 넓이, 파문이 일고, 흐르는 등의 물리적인 속성을 통해 자유로운 상상을 펼치도록 유도하며, 이는 생명력과 치유의 이미지로 역동성과 변화로, 반영과 나르시시즘 등의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갖는다. 그리고 물은 모성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물에 대한 무의식적인 갈망이며, 자연에 대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속적인 것은 우리가 어버이에게 느끼는 감정을 투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은 순수함, 정결함 등으로 동,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로 발견되며, 영세(領洗)의식만 보더라도 많은 종교에서 나타나며 물을 통하여 더러운 영혼을 변화시켜 정화하려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6) 노주선, “물의 은유를 적용한 주택디자인 연구”, 석사학위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서양에서의 멜시아 엘리아데(M. Eliade)는 “물에 들어가는 것은 형태 이전으로 되돌아감, 완전한 재생, 새로운 탄생으로 역행하는 것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물에 들어감은 형태의 해소(解消), 선재(先在)하고 있는 것의 무형태성으로의 회기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형태의 현현(顯現)이라는 우주 발생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물과의 모든 접촉은 재생을 포함하고 있다.”고하여 새롭게 태어난다는 신생(新生)의 종교적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물의 상징을 죽음과 생명의 상징으로 보았다.⁷⁾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물이 일으키는 상상력을 인간 사고 가운데 가장 큰 가치 부여 작용의 하나 즉, 순수성에 의한 가치 부여 작용의 대상으로 보면서 정신을 정화시키는데 적절한 대상으로 보았다.⁸⁾ 동양에서는 중국의 노자(老子)가 물의 중요한 모습의 하나로, 평형작용의 상징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지나가면서 높은 것을 깎아내고 낮은 것을 돌아준다”⁹⁾라고 하여 물의 평형성의 이미지로써 사회적 평등관의 이미지와 결부시키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물이 갖는 이미지는 깊이감, 파문, 파장, 물결, 반사효과, 유연성, 흐름, 속도감, 반짝임, 빛 등이 있으며 그에 대한 정신성으로는 생명감, 나르시스적 느낌, 순환, 정화, 자아의 발견, 자유, 어느 순간 봤던 기억들의 집합, 무한한 깊이감이 주는 심리적 휴식의 느낌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물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개물이자 다양한 상상력의 원천이다.

본인에게 있어 물은 정신적인 사유와 명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이다. 이것은 상상에 의해서 시각화되고 이미지화하기에 충분한 소재였다. 이러한 물에 대한 표현은 이미 예술가들에 의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사실적인 표

7) 한우정, “흔적에 대한 물이미지 표현연구”, 석사학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8)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 이가림 역, 문예출판사, 1943, p.24

9) 도올 김용옥, <노자와 21세기(下)>, 통나무 출판사, 1999, p.47

현에서 추상적인 표현으로까지 다양하게 보여져왔고, 그 영역은 미술뿐만 아니라 예술에 포함되는 모든 영역에서 물의 다양한 속성만큼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국내 작가 중 한은선의 작품 <물결치다> (도판 1, 2)는 한지에 푸른빛 물감이나 먹을 이용하여 물을 적신 종이죽을 가지고 작업을 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거대한 암흑이나 심해를 연상시키는 검거나 푸른 바탕위에 마치 빅뱅 순간의 우주, 만개한 꽃이나 별, 불꽃 혹은 소용돌이치는 물길처럼 수많은 은유가 일렁인다. 그리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고요하면서도 생동하는 신비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물을 소재와 주제로 삼아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물방울을 그리는 작가인 김창렬의 작품 (도판 3, 4)은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부터 배를 연상케 하는 달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들 중 어떤 방울은 납작하고 그 속의 물이 비어버린 모양새의 것들도 있다. 어떤 결정체처럼 영롱하게, 투명하게 영원토록 응결되어 있는 물방울들은 그렇게 그려진 그 자체로서도 아름답다. 그리고 그 물방울 하나하나를 보다 유심히 바라보게끔 유혹하고 또,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보는 이를 그 물방울처럼 투명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이밖에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의 작품 <Water Lilies>(도판5)은 물의 흔들리는 성질인 유동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흔들림은 물의 특수한 이미지로 모네의 작품에서는 세로곡선의 사용으로 흔들림의 이미지에 리듬감을 주며 깊이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헬렌 프랑켄술러(Helen Frankenthaler)는 작품 <Ocean drive west 1>(도판6)에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 정신적으로 체험한 가볍고 투명한 물의 추상적 이미지들을, 번짐으로 생겨난 유기적 얼룩과 유동적 선의 움직임, 그리고 아크릴 물감의 수채화적 특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파도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판7)은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작품 <The Great wave of Kanagawa>

(도판8)에서는 단순하면서도 힘차고, 사실적이진 않지만 과도의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물은 다양한 이미지로 원초적인 생명력과 원대한 힘을 내재한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이미지 창출의 근원이 된다.

본인이 생각하는 물은 색채가 없는 투명한 물질로 빛을 투과시켜 속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무색, 무미, 무취한 맑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맑음은 순수, 정화, 소생, 치유를 암시해 주기에 적합하였고 이러한 물의 투명성은 어떤 물질과도 조화를 이루어 본인에게 친밀한 감성을 갖게 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물에 대해 갖는 심리적인 면을 자아를 재인식 하는 것과 연결시켜 그것을 치유로 연결지어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에 보여 지는 물의 이미지는 물 자체의 형상을 흐름의 이미지인 물결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속성이, 천과 만나면서 우리나라 오는 이미지가 정신적으로 승화 되어 정화(淨化)와 재생의 의미로, 또한 그것이 치유의 의미로 연상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내적 치유

(1) 내적 치유의 의미

내적 치유라는 말은 영어로 inner healing 이라고 하는데 inner 라는 말은 '내적인', '내면의'라는 뜻으로 외적인 또는 신체적 치유와 구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말로써 치유(healing)라 함은 손상을 입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치유는 결함, 왜곡 등이 생기기 전보다 더 성숙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치유는 육체와 마음이 병적 상태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적 치유는 신체적 치유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관심이 소

홀해 지기 쉽다.

다시 정의해 보면, 내적 치유는 상처로 인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해방 시키는 것이다. 즉, 과거의 어두운 사건을 재조명하고 치유하여 사건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의 해결과 고통감소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자각 하고 깊게 깨우침으로서 진정한 나를 알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정립하는 자아발견, 자아성장, 자아실현 까지를 치유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발견하여 나아가 이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내적 치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정적인 요소로, 정신적 외상과 충격으로 인한 감정의 상처를 회복함으로써 건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2) 내적 상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전 영역에서 건설적인 관계든지 파괴적인 관계든지 인간관계는 생기기 마련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이 관계는 살아 있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관계들에서 내적인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한 사람이 지니게 된 마음의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소중한 마음이 거부당할 때 자기 존재가 거부당하는 아픔을 느낀다. 거부당한 나의 아픔, 억울한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았을 때 가슴속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한(恨)으로 남아 병이 된다. 특히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고 있었던 삶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느낄 때 그 고통은 더 클 것

이며, 아무런 이유 없이 당했다고 생각될 때의 억울한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하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이기를 바라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중과 인정을 받기 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미에 상처'를 입게 된다. 여기서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의 사이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되고 그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가 중요한 만큼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도 대개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정상적일 때 인간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은 상한 감정이 쌓이고 쌓여 마음속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상한 감정)로 짓눌려 어두운 마음의 누더기를 겹겹이 걸치게 된다. 이러한 마음의 겹질을 벗고 본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을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내 마음(무의식의 창고)속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과거에서부터 쌓여있는 미해결의 감정들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¹⁰⁾ 우리는 감정에 상처를 당할 때에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처를 빨리 감추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내적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내적 상처는 한번 생기면 그것이 치유되기까지는 없어지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내적 상처로 인한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며, 자기 평가(성숙도)가 아주 낮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만족도, 타인의 비판에 대한 방어도 그리고 소외감의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나친 완전주의에 빠지고 지나치게 예민하다. 지나치

10) 조원욱, <본성 회복과 내적 치유 훈련>, (서울; 도서 출판원, 1997), p.21~22

게 예민한 사람은 항상 깊은 상처를 받는다. 상한 감정의 소유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이들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¹¹⁾ 따라서 상처 난 마음은 쉽게 부정적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병든 부산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적절한 치유가 필요하다.

내적 치유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문제를 직접 안고 있는 본인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에 체험되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해 갈 때 치유는 서서히 이루어진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마치 그러한 일이 실제로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경력을 단지 자기의 마음에 드는 편안한 크기로 줄이고 공상을 따르려고 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에 직면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마음을 바꾸어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¹²⁾ 우리의 상처 입은 기억은 그것을 끌어내어 생활체험에 일부로 기억해 냄으로써 치유가 된다. 어떤 사건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약화 시켜 준다. 상처받았던 기억을 회상하는 고통은 수술 받는 고통과 같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운 감정일지라도 의식 세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시 대면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억을 모두 다룰 필요는 없다. 가능한 한 많은 기억을 다루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대체로 하나의 기억을 치유하는 것은 그와 유사한 많은 기억들에게 치유제 역할을 한다.¹³⁾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 연속선상에 있다. 아픔을 겪기는 다들 마찬가지다. 다만 그 아픔의 사연이 다르고 그 강도의 차이

11) David A. Seamands, <상한 감정의 치유>, p.22~26

12) 헨리 나우웬, <생활한 상기자로서의 사목자>, 이봉우 역, (왜관; 분도 출판사, 1995), pp.24~25

13) 크래프트 H. 찰스,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윤호 역, (서울; 은성, 1995), pp.226~228

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은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정을 기억하고 드러내야 한다. 사건 자체를 없애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상처 치유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항상 다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했으며 내 자신이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있어 가장 컸던 상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가장 가까웠고 그만큼 나에게 있어 의미 또한 큰 사람에게서 바라던 만큼의 마음을 받지 못하는 데서 왔던 상처였다. 그 상처는 모든 일상에서 내 자신을 숨어들게 만들었고 그럴수록 아픔은 더해갔다.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기까지 첫째로 종교적 힘을 빌렸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본인의 의지와 자연요소인 물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하며 얻어진 치유의 과정을 논하려 한다.

물을 접하고 취하는 것은 나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아파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상처의 원인에서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직면하였다. 이것은 자신뿐 아니라 상처가 된 상대방을 용서하게 하여 모든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상처를 받게 만들었던 상황과 사건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과 마음상태를 변화 시켰던 것이다.

아직도 세상에는 나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이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자신의 반응을 바꿀 수 있다면 치유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비의 특징과 상징

자연물 가운데 나비는 곤충 중에서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대상으로 인간에게 매우 친근한 존재이다. 나비는 한문자로 접(蝶)이라 쓰고, 날아다니는 곤충의 특성 중 하나인 알로 태어나서 알 속에서 나와 홀로 성장하며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 성충(나비)이 되는 재미있는 생태 현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곤충 가운데서 나사 모양의 긴 주둥이를 가진 것으로 두 쌍의 아름답고 큰 앞 모양의 막질(膜質)날개가 있으며, 날개에 많은 비늘가루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⁴⁾ 나비의 날개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형태 변화를 부분적으로 확대해보면 수많은 계층들의 정교한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색채, 무늬, 질감이 매우 다양하며 독창적이다.

나비가 아름답게 보이는 까닭은 날개에 있으며, 날개는 여러 개의 날개 시맥(翅脈)에 의해서 많은 방으로 구분되며, 이 방과 날개 시맥에는 각각 편의상 명칭을 붙이고 있다. 나비의 날개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기왓장 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비늘가루가 꽂혀 있다. 여기에는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나비의 몸을 비에 젖지 않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색채와 무늬를 나타내게 한다.¹⁵⁾ 또한 나비의 날개는 윗면과 아랫면의 색깔이 서로 다른데 윗면의 색은 나비들에게 동족을 식별하고 암수를 구별하게 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나비는 사람들 눈으로 암수를 식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암수에 따라 색채와 무늬의 차이가 아예 나지 않는 것도 있다. 날개 아랫면의 색은 보호색으로 특별한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나비들은 북극의 툰드라와 같이 추운 지방뿐만 아니라 열대의 사막이나 원시림과 같이 더운 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떤 생활 상태에서도 견디는 특유의

14) 미승우, <세계의 나비>, (서울; 세계의나비전시회기념출판),p.6

15) 이원규, <나비>, (서울; 현암사 1993), p.56

비상한 적응력으로 지구 전체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¹⁶⁾ 기온이 따뜻한 곳으로 갈수록 나비의 날개는 더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태어난 계절에 따라 약간씩 빛깔이 다른데 봄 보다 여름이나 가을에 태어난 것이 빛깔도 더 짙고 날개의 크기도 더 크다.¹⁷⁾ 햇빛을 직접 쬐는 곳에 사는 나비는 밝은 색인 흰색, 노란색 계통이 많고 그늘진 곳에 사는 것은 검은색 계통이 많다. 간혹 검은 색의 나비가 양지 바른 곳으로 나오게 되면 빠른 속도로 그곳을 지나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생리적인 것으로 검은색 날개는 태양의 복사열을 쉽게 흡수하여 양지 바른 곳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가 열 마비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나비 날개의 생김새는 서식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나비에게 날개의 무늬와 색채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본인은 나비가 각양각색의 색깔과 형태, 생명성, 상징성 등으로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비는 각각 고유하고 개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형적인 미와 내적 상징미를 가지고 있었다.

나비는 보는 관점, 구성방법, 표현기법에 따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 형태와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어 유기적 형태, 화려한 장식성, 신비로운 생명력 등이 살아 있는 것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또한 이들은 이미 미술, 문학, 종교 등에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생물체로 존재가 인식되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과 마음을 나타내는 나비는 지상에 사는 애벌레와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 하늘을 나는 나비로 변신 되어져 있었다. 이러한 생태과정을 통한 변신은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며 인간사의 인내와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구, 인간 내면의 성장 과정, 자아실현의 상징성도 지닌다.

16) 헤르만 헤세 <나비>, (서울;범우사, 1989), p.134

17) 남상호, <한국의 나비>, (서울 : 대원사, 1999), p.13.

이렇듯 나비는 변신의 상징으로써 새로운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인에게는 물과의 완벽한 매개체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나’와 ‘내면이 성장하게 되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 충분한 소재였다.

작품에서의 나비의 형태는 광석손의 <축제>(도판8)에서 보여지는 묘사된 나비와 묘사되지 않은 나비를 보고 본인의 작품에 응용해 보았으며, 【작품3】에서는 사향 제비 나비(도판10)의 형태를, 【작품7,8】에서는 제일 줄 나비(도판11), 【작품9】에는 꼬리 명주 나비(도판9)의 형태를 각각 응용하여 나타내보았다.

대상에서 자신의 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다 주관적인 상징화의 능력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예술가가 자신의 경험, 지각한 것을 상징화함으로써 상징의 수단으로 자신만의 예술의 장을 열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의 이미지와 함께 나비의 신비롭고도 다채로운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써 그 의미를 본인과 치유로 연결하여 상징화 시켜보고자 한다.

2. 작품 제작 및 분석

1) 작품제작 및 과정

자연을 응시하고 있으면 자연 그 자체에서 보여지는 생명력은 상당한 감흥을 일으키게 한다. 예술의 목적은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상적으로 또 다른 모습을 구현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단순한 사실을 묘사한다는 것은 어떤 예술에 있어서도 그 목적은 될 수 없고 단지 물상의 생명을 자아내게 할 양 만큼만 필요할 따름이다.

예술가가 추구하는 형(形)이란 생명의 율동에 의해 하나의 질서 체계를 구성하여 자연의 형을 직접 도입하기도 하고 또는 자연의 형을 변형시키거나 단순화시키면서 예술가의 의식에서 떠오르는 형을 표현하는 것이다. 결국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살리면서 간결하게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의 전체를 집약(集約)시킬 수 있을 것 인가를 관찰하여 집약적으로 변형시킨 형태를 재형성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사상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주고 정화와 재생의 의미로 정신적 치유를 나타내는 물의 이미지를 자아를 나타내는 나비의 형상과 함께 접목시켜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고요한 물의 표면에 번져가는 파문은, 일상에 젖어있는 우리의 정신에 파장을 전달하여 사고의 변화를 모색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표면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물속 깊은 곳의 공간을 상상하게 만들어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일으키게 한다. 파문은 끊임없는 반복성과 점층으로 인하여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정을 유발시키며, 파문으로 인해 드러나는 물의 깊이는 내면 깊은 곳에서 정신이 활동하는 것을 도와 회상이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그 회상

은 감추어진 상처를 드러내어 주고, 물이 가진 투명함과 깊이 안에 자아를 담아내어 상처의 아픔을 씻어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과문은 물결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물결과 그로 인한 깊이감을 작품표현의 모티브로 삼아 작품을 전개해 나가려고 했다.

“인간에게 바다란 자궁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모태 안에서 무의식 중에 물과의 교감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정신적인 이완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사색을 일으키게 한다. 이는 이미 과거가 되어 나를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는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체험이며 현재와 미래에 걸쳐 나라는 존재의 내면성을 사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체험이자 공간이 되어준다.

본인의 작품속 물의 이미지는 정신적 이완과 심리적 휴식, 정화된 정신의 의미로써, 주로 물결의 흐르는 이미지로 단순화 시켜 율동적 곡선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물결위로 날아가거나 앉아있는 나비의 형상은 변화의 의미로 자아를 나타내게 된다.

이로써 물결의 부드럽고 율동적이며 역동적 흐름에 자아를 맡겨 내면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기억을 씻어내어 변화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형태(形態)가 대상과 주제와의 거리를 지각하는데 효과적이라면, 색채(色彩)는 대상의 표현적 속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색은 청색 계열의 푸른 색조일 것이다. 이는 맑은 하늘의 색을 그대로 반영하는 바다의 색에서 그 인상을 강하게 받은 영향으로 투명한 물도 곧 푸른색으로 연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물이 갖는 색채는 곧 빛과 물질을 반영하는 색으로서, 물 자체로는 투명한 것으로 색채가 없는 물질이다. 물은 주변 환경의 색을 그대로 반영하며 푸르고, 빛에 의

해서 보여 지는 것이고, 검고 탁함은 빛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즉, 빛에 의해서 물은 새로운 색조를 얻는 것이며 또한 빛은 맑은 물을 만날 때 한층 더 밝음을 얻게 된다.

본인이 작품 속에서 물의 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색은 단순히 물 자체만을 나타내는 색이 아니라 물에 대한 본인의 정신적 개념과 느낌이 내재 되어있는 색채들로 심리적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예술작품에 있어서의 색채는 자연대상을 재현하고 사물을 구별하는 구실 뿐만 아니라 색을 통해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매체로 예술가의 사고를 반영한다. 따라서 작품에서의 색채들은 정신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인의 기억이나 관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의 색감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위해 원색과 그 중간의 색을 사용하였으며, 보색의 사용으로 산뜻한 느낌과 더불어 보다 율동적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원근감과 공간감을 위해 채도와 명도를 높이기도 하였다.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본인이 원하는 전반적인 화면의 질감은 편안하고 따뜻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로 연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표현을 위하여 본인은 작품 제작 방법으로 천위에 염색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의 흐르고 침투하는 성질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천의 부드러운 재질감이, 물이 갖는 부드러움과 모성에서 느끼는 포근함을 연상하도록 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염색이란 염료를 사용하여 섬유 또는 섬유제품에 해당되는 실이나 직물 등에 색채를 가미해서 미적 또는 실용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천의 종류로는 견(絹-Silk)직물을 사용하였는데 견직물은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우아한 광택을 내는 고급직물로 흡수력 또한 뛰어나 본인이 표현하려는 것에 가

장 적합하기에 사용하였다.

본 작품에서는 조직력이 풍부하고 문양효과가 뛰어난 자카드(Jacquard)견직물을 사용하여 화면을 풍부하게 연출하여 밀도 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염료로는 견직물에 가장 우수한 염착성을 갖고 있으며, 채도가 높아 색상표현이 자유로운 산성염료를 택하였다. 그리고 표현 방법으로는 염색기법의 여러 가지 방법 중 강력한 방염력이 있어 변화있는 염색물을 얻을 수 있고, 작가가 구상한 작품의 표현이 가능하며, 회화적인 표현까지도 가능한 납방염을 사용하였다. 납방염이란, 염색하지 않을 부분에 염료가 침투하여 염색되지 않도록 밀납이 혼합된 파라핀 왁스로 막아가며 원하는 염료의 색으로 그림을 그려 조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염색하고자 하는 천위에 녹아서 액체 상태인 밀납이 혼합된 파라핀 왁스를 천의 일정한 부분에만 스며들게 붓으로 칠을 한 후 이것이 입혀지지 않은 부분에 염액을 직접 칠하는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작품의 전체적 화면을 제작하였으며 액체상태인 납을 붓에 묻혀 뿌리는 방법과 염색작업이 끝난 후 염색물 위에 구슬 장식(Beading)을 수작업으로 바느질하여 물결 안에 물보라가 일어나는 느낌을 주었다.

작품제작에 앞서 염색의 전 처리 과정으로는 정련이 있다. 이것은 염색할 천에 묻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천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다.

정련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넉넉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후 40~50℃의 물에 세제를 적당히 풀어 한두 시간 담가 두었다가 약 30분가량 삶아서 흐르는 물이나, 넉넉한 물에 여러 번 잘 행구어 가볍게 짜고 털어서 그냥 편 채로 말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풀기가 있는 면이나, 마, 광목은 풀빼기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견 종류는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정련하기도 한다. 이때 염색하고자 하는 천을 세제를 풀어(직물

무게의 3% 가량) 놓은 물에 넣어 30~40분간 담근다. 그리고 세제도 염색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 후 천을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행구어 낸 후 건조를 시킨다. 정련을 거친 뒤 천을 만져보면 미끄러운 기가 없고 뽕뽕뽕한 감촉이 들고 물을 잘 흡수 시킨다. 이렇게 정련된 천은 염색시 불순물들이 염료의 침투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고 균일한 염색이 되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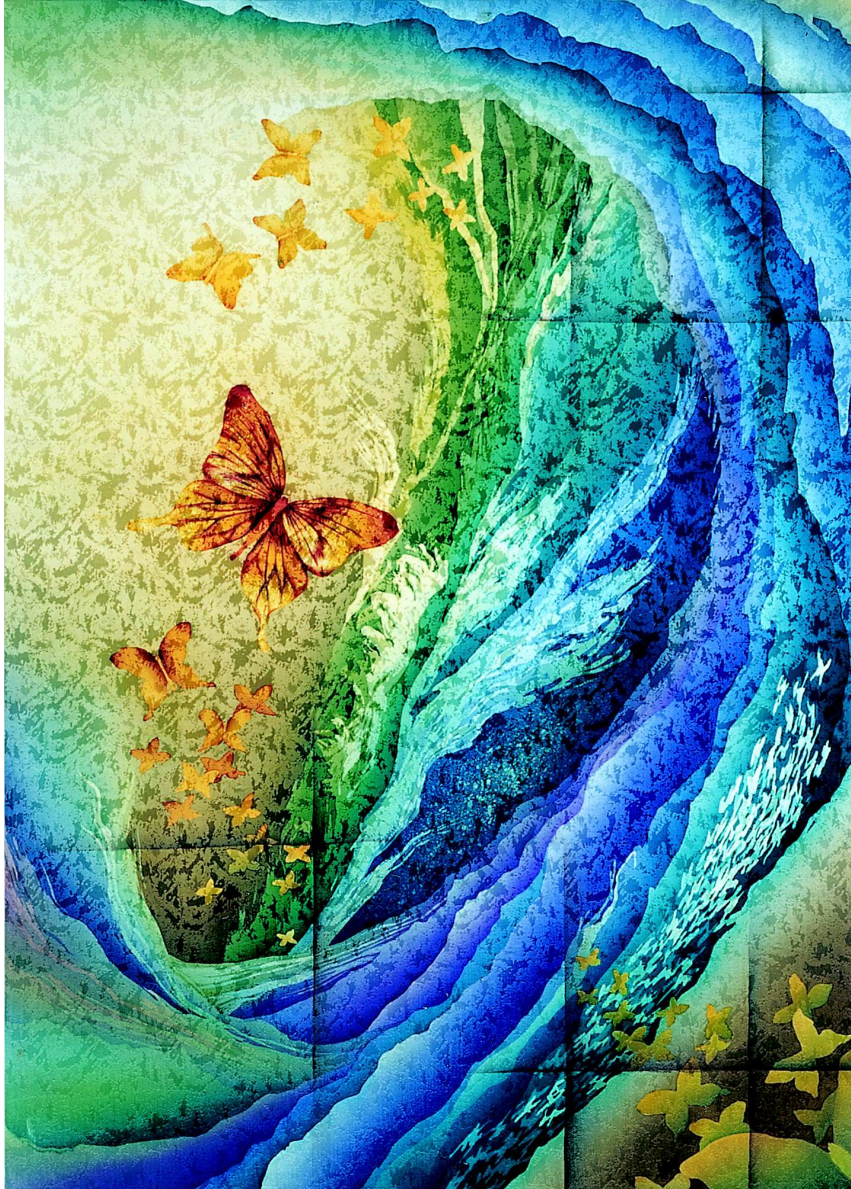
정련이 끝난 후에는 천을 틀에 팽팽하게 건 다음 밑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납을 이용하여 방염한 후 염액을 칠하며 원하는 농도와 색상을 표현한다. 이렇게 하여 그림이 완성되면 후처리를 하게 된다. 후처리는 염색물에 묻은 납의 양이 많을 경우 먼저 납을 비벼서 일부를 털어낸 후 나머지 납은 신문지를 이용하여 염색물의 위, 아래에 놓고 다림질을 하여 납을 제거한다.

이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여 납이 충분히 제거되면 또 다시 신문지를 염색물의 위, 아래에 놓고 돌돌 말아 증열기에 넣고 100℃이상의 고온에서 1시간 정도 증열 처리를 한다. 증열 처리 후 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염색물을 휘발유에 넣고 중탕 처리하거나 탈납제에 넣어 납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 후 건뢰도를 높여주기 위해 염료 고착제(물1L:고착제 5 cc)에 약 30분간 담갔다가 꺼내어 수세하여 건조 시킨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은 계획대로 색상의 선명성을 연출할 수 있어서 증열 처리 후 따로 염료 고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흐르는 물에 수세 하여 건조 시킨 후 다림질을 하여 마무리 하였다.

2) 작품 분석

【작품 1】 따뜻한 소통



Jacquard Silk, 산성염료, 83×122cm, 2005

【작품 1】 따뜻한 소통

재 료: Jacquard Silk, 산성염료
기 법: 납방염, 뿌리기, 드라이 터치
크 기: 83×122cm
제작연도: 2005

나비의 알은 애벌레로, 그리고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에서 결국 나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알의 상태에서 나비로 되는 전 과정을 거치면서 고정불변 하지 않는다. 알이 변해서 애벌레로 되고, 애벌레가 변해서 번데기로, 또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로 되는 것일 뿐이다. 알과 나비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알의 상태에서 나비로 되기까지 변하지 않고 옮겨가는 ‘어떤 것’은 없지만 알과 나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나비 알속에는 이미 나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들어 있다. 그래서 나비는 나비 알에서만 나오지, 모기 알에서는 나올 수 없다.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존재가 다른 존재로 바뀌어져 갈 때 고정불변 하는 영혼과 같은 실체가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변화해서 다른 존재로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치유 되어지는 나 자신은 실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들은 언제나 다시 들춰내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수면 안에서 그 아픔을 다시 기억해 보며 그것과 나를 소통시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변화 시키고자 했다.

작품에서 나비는 이러한 자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푸른 물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깊고 푸른 물 안에 나를 담음으로써 상처로 인한 나의 아픔

의 눈물을 감추기 위함이다. 또, 물의 결을 따라 그 흐름을 느끼면서 평온함을 찾으려 하였다. 작품에 보이는 어두운색의 십자 선들은 상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결위에 배치한 것은 나의 상처를 물속에 담아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비의 색채는 황색(yellow)에서 오렌지색(orange)을 사용하여 아픔으로 인한 어두움보다는 변화되어 갖게 된 따뜻함을 상징하며 물결은 나비의 색과 상반되게 하여 푸른 색조를 사용함으로 물의 투명성과 깊이를 나타내려 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 작품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였다.

【작품 2】 물결이 일어



Jacquard Silk, 산성염료, 75×100cm, 2005

【작품 2】 물결이 일어

재 료: Jacquard Silk, 산성염료

기 법: 납방염, 뿌리기

크 기: 75×100cm

제작연도: 2005

조용한 수면 위에 파문을 일으킨다. 그 속에는 생성과 소멸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과 비슷한 면들이 있다. 그 곳에 자신을 담아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간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모든 파동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해 주는 파동이며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연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 중에 하나인 물의 파장은 매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살아있는 모습이다. 수면위에 어떤 사물이 떨어지면서 내는 물방울의 결정체는 햇빛에 눈부시게 빛나는 물의 파장과 물결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작품에 사용한 것은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삶 안에서의 또 다른 희망과 시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작품2에서는 자아를 나타내는 나비가 물줄기 한곳에 자리 잡아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처를 안은 자아가 물의 어느 한 부분에 부딪혀 앉아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물결로 일어나 물줄기가 되어 자아를 씻어내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의 전체적 색감은 붉은색(Red)과 황색(Yellow)계열로 밝고 따뜻해 보이도록 하였으며, 큰 물줄기안에 거품이 일어나는 듯 보이도록 뿌리기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역동성 있게 표현해 보았다.

또한 그림의 하단 부분을 어두운 갈색(Dark Brown), 위로 올라갈수록 보라색(Violet)으로, 상단은 밝은 황색(Light Yellow)을 사용하여 화면에 깊이감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3】 유유히



Jacquard Silk, 산성염료, 구슬장식(Beads), 80×110cm, 2005

【작품 3】 유유히

재 료: Jacquard Silk, 산성염료, 구슬장식(Beads)

기 법: 납방염, 뿌리기

크 기: 80×110cm

제작연도: 2005

고요함 속에서 잔잔히 흘러가는 물을 바라본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는 강물의 흐름...정지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수면위로 펼쳐지는 끊임없는 파문들. 점점 넓어져 가는 동심원, 그리고 사라짐의 반복과 그 위로 펼쳐지는 그림자들을 보며 깊은 상념에 젖어든다.

-작업 일기 중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 마음이 답답할 때 마다 친구와 함께 한강로를 찾곤 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 바라보던 한강의 물결은 바라보고 있는 것 만으로도 나를 취하게 만들어 그 물결의 흐름에 깊이 빠지게끔 하곤 했다.

그때 느끼던 평화로움과 안락함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나를 평화롭게 해준다.

이 작품은 그때의 느낌을 다시 회상하며 작업해 보았던 작품이다. 수면위로 비춰진 구름과 흐르는 물결사이로 가끔씩 일어나던 물거품들...그리고 그 위로 비춰진 내 모습... 본 작품에서는 자아를 나비가 되어 수면 위로 유유히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해 보았다. 답답하고 상처 받아 아픈 마음을, 정지된 듯 하지만 수없이 움직이는 물결위로 날아가며 그 흐름에 깊이 빠져들어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작품의 전체 색감은 주로 청색(Blue)과 녹색(Green) 계열을 사용하여 고요히 보이는 수면을 나타내려 하였고 황색(Yellow)을 부분, 부분 사용하고 구슬장식을 이용하여 작은 물거품의 반짝이는 느낌과 화면의 경쾌함을 더해 주고자 하였다.

【작품 4】 투영



Jacquard Silk, 산성염료, 구슬장식(Beads), 80×110cm, 2005

【작품 4】 투영

재 료: Jacquard Silk, 산성염료, 구슬장식(Beads)

기 법: 납방염, 뿌리기

크 기: 80×110cm

제작연도: 2005

수면위에 붓 떠오른다. 내손은 무거운 듯한데 물위로 등 떠올라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진다. 얼굴 위로 미소가 슬며시 번진다... 이 느낌... 참 좋다.

-작업 일기 중

이별에 대한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그런 아픔은 있었다. 소심했던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도피성 때문인지... 나는 2년 동안 내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었다. 그렇게 힘들 때 마다 집으로 돌아가면 욕조에 들어가 피로를 풀면서 동시에 마음의 휴식을 얻곤 했다.

그 물속에 얼굴을 묻고, 몸을 묻어 지나간 기억들을 떠올려 보았고 내속의 상처가 나를 과거 속에 잡아두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내 마음을 열며 나를 위로할 수 있었다.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은 쓸데없다는 것...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쉽게 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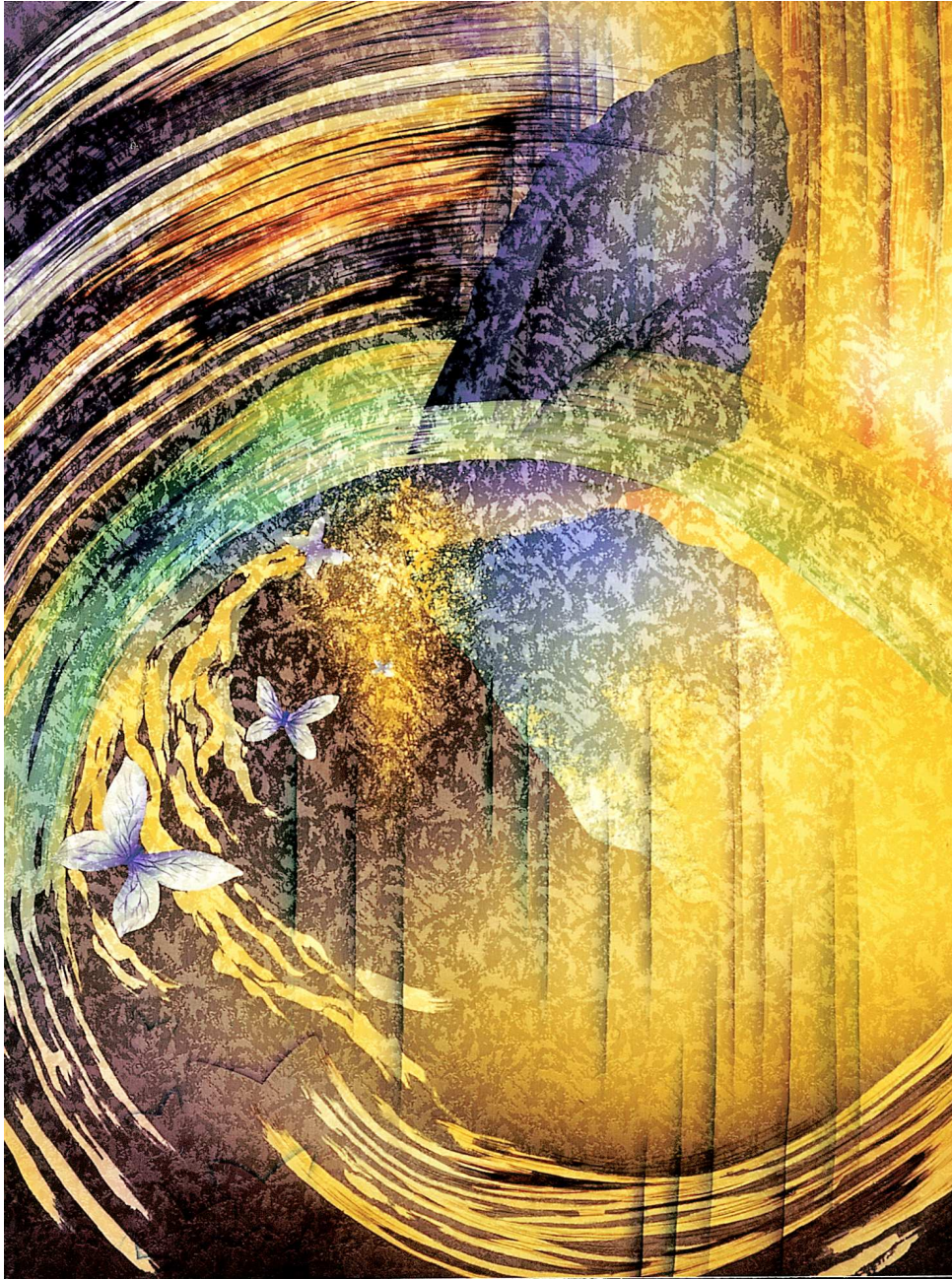
작품4는 그 당시 물을 만지고 느끼며 스스로 깊은 휴식과 안정을 되찾았던 것을 기억해 보며 작업했던 것이다.

물에서 느껴지는 수평적인 광대함, 수면위에 생기는 파문의 이미지로부터

사색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통로로서의 이미지를 위하여 물결의 흐르는 이미지 속에 나비의 형상을 투영시켜 보았다.

전체적인 화면의 구도는 오른쪽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물결 형상을, 왼쪽에는 작은 잔물결의 파장이 흘러나오는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색다른 분위기를 시도해 보았다. 색채는 온화한 느낌의 물 이미지를 위해 황색(Yellow), 오렌지색(Orange), 적색(Red)을 사용하였고, 작품의 하단부분을 어두운 보라색(Dark Violet)으로 사용하여 작품에 안정성과 깊이감을 주고자 하였다. 또, 나비의 형상은 물결이 겹치는 느낌이 들도록 물결의 선을 열게 하여 나비 형상 안에 비춰지도록 하였으며, 나비의 형상 바깥 부분은 어두운 보라색으로 강약 조절을 하여 물속에 침투하는 모습을 포착시키고자 하였다.

【작품 5】 흐름 속으로



Jacquard Silk, 산성염료, 83×117cm, 2005

【작품 5】 흐름 속으로

재 료: Jacquard Silk, 산성염료
기 법: 납방염, 뿌리기, 드라이 터치
크 기: 83×117cm
제작연도: 2005

물 속 깊이 담고 있는 기억과 시간, 그리고 그 기억과 시간 안에 있는 상처를 표면에서의 반응과 넓이로 재어본다. 그곳에 담겨진 나는 점점 그 깊이에 빠져 평온을 느끼게 된다....

이 작품은 물의 순환성과 항상성, 흐름에서 오는 느낌의 요소들을 자아와 마주하게 함으로써 정화의 느낌과 생명감, 심적 휴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물의 속성을 내 안에 내면화 시키는 과정으로 시도 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나를 바라보며 재발견해 치유의 과정으로 이끄는 것을 표현하고자한 작업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물의 흐름은 거의 원형으로 빠르게 흐르는 듯이 보인다. 여기에서 물의 흐름은 내 마음의 흐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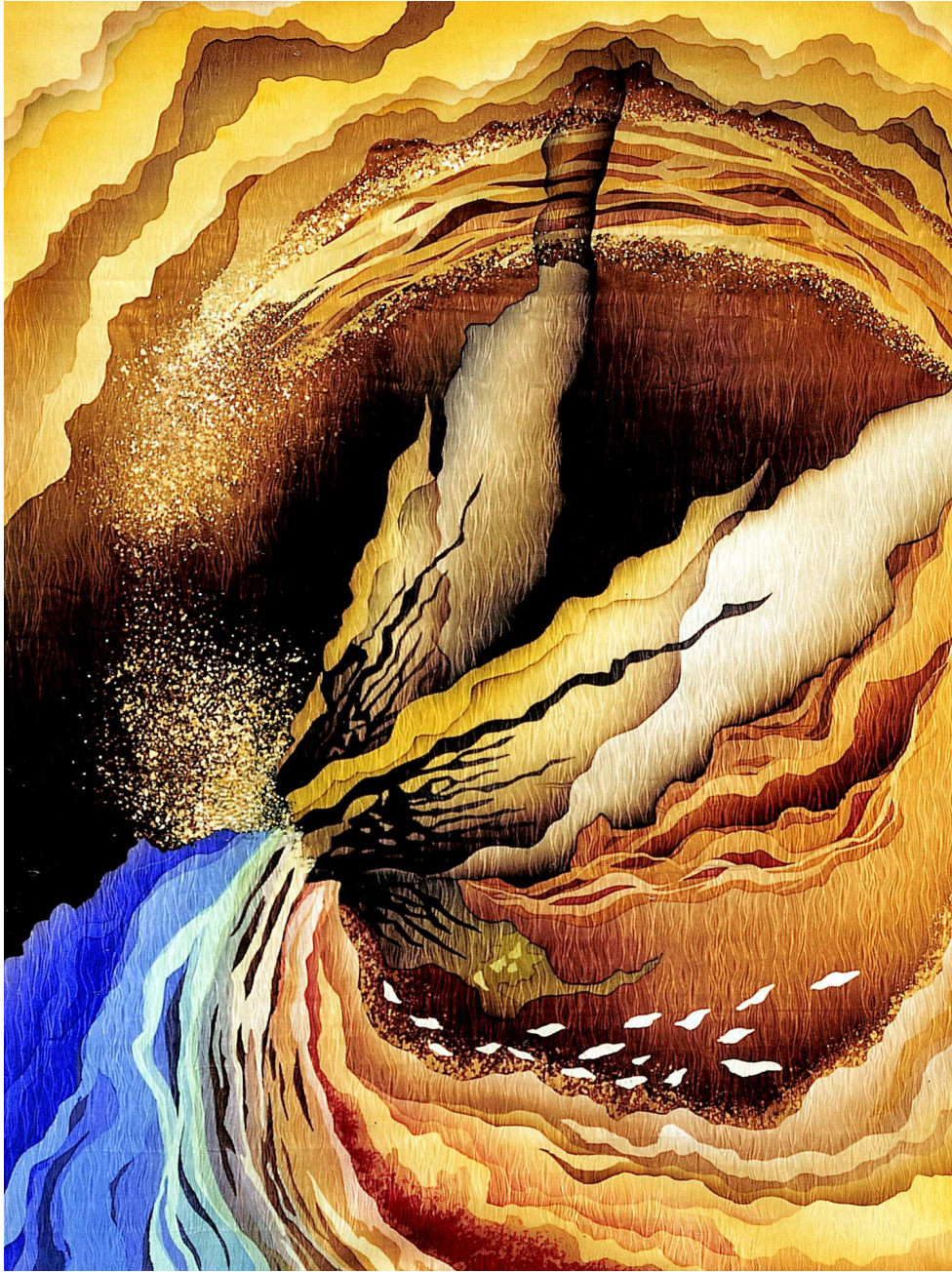
그 빠른 흐름 속에 마음의 상처를 담아 그것과 함께 흘려보내고 싶었던 내면의 흐름을 말하고 싶었다.

이 작품은 형태와 색채가 처음 스케치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와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다른 작품과는 다른 형태를 표현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작품이기도해서 애착이 가는 작품 중 하나이다.

작품의 전체 색감은 주로 황색(Yellow)의 배경과 푸른색 계통을 사용하여

치유에 대한 강한 희망과 의지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원형으로 빠르게 흐르는 듯 보이는 물의 이미지를 위해 드라이 터치 기법을 사용했다. 또한 직선의 사용으로 긴장감과 울동감을 더해주고자 하였다.

【작품 6】 환기(換氣)



Jacquard Silk, 산성염료, 구슬장식(Beads), 95×115cm, 2005

【작품 6】 환기(換氣)

재 료: Jacquard Silk, 산성염료, 구슬장식(Beads)

기 법: 납방염, 뿌리기

크 기: 95×115cm

제작연도: 2005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들은 감염된 상처처럼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치료될 수 없고, 안으로 퍼지고 다른 곳을 감염시켜서 상태를 악화 시킨다.

오래전 대인관계로 인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다. 대학시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만남이들...그 가운데 가깝게 지내던 친구로부터의 상처.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 기억 속에 자리 잡혀 버린 그때의 아픔은 나를 계속 괴롭게만 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기억을 바꾸고도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고, 스스로 그때를 다시 회상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찾았다.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했다.

작품6은 기억을 환기 시켜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작품의 전체적 색감 또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려 노력하였다.

커다란 물의 흐름은 나를 감싸 안고 끝없는 휴식을 취하게끔 해준다.

그것과 동화되어지는 그 느낌... 그것은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여유를 갖게 한다.

이제 더 이상의 불안함과 아픔은 없다. 상처가 되었던 기억은 그저 과거의

한 부분으로 남아 아픔은 씻겨져 버리고 없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 작품을 할 때는 다른 때 보다 가장 편안했고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다.

작품에 보여 지는 곡선 형태의 이미지는 물의 유동적인 움직임에 따라 표현되는 다양한 물줄기의 형태로 화면에서 형과 색, 공간을 구체화 하면서 나비의 형상에 역동적 힘과 따뜻함을 불어 넣어준다. 색감은 주로 황색(Yellow)과 갈색(Brown)계통을 사용하여 물 안에서의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물결 하단의 한 부분은 푸른 색조를 사용하여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는 화면에 경쾌함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7】 소통Ⅱ



Jacquard Silk, 산성염료, 93×135cm, 2005

【작품 7】 소통 II

재 료: Jacquard Silk, 산성염료

기 법: 납방염, 뿌리기

크 기: 93×135cm

제작연도: 2005

선택이란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이며, 그 안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한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후회를 가져오고 상처로 남기도 한다. 그래서 그 상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또 다른 선택을 할 때 힘들게끔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삶을 따로 분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더 힘든 것 같다.

작품7에서는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고 가장 편안한 상태, 정신적 안정을 취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화면에 보여지는 곡선의 흐름은 끝없는 부드러움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과거의 아픈 흔적을 깨끗이 정화 시켜주는 물결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나비의 형태는 그 물결에 묻혀져 가며 아픔에서 벗어나 현실과 소통해 나가길 원하는 자아를 의미하며, 물결위로 날아가고 있는 하얀 나비의 형태는 내적 상처에서 치유되어져 정신적 안락함을 누리는 또 다른 자아를 의미한다.

또한, 배경 전체에 드러나는 녹색(Green)과 황색(Yellow)은 평온함과 아픔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 하며, 그림 하단의 회색(Gray) 부분은 과거 상처의 흔적을 나타낸다.

【작품 8】 고고히 흐르다



Jacquard Silk, 산성염료, 98×132cm, 2005

【작품 8】 고고히 흐르다

재 료: Jacquard Silk, 산성염료

기 법: 납방염, 뿌리기

크 기: 98×132cm

제작연도: 2005

기억들을 정리하고 또 다른 기억들을 형성해 나간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아픔의 흔적으로 자리 매김 한다. 하지만 아픔을 아픔으로 남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소중한 경험으로 남김으로써 나의 내적인 치유는 완성이 되어진다.

즉, 꼭꼭 닫아버렸었던 마음의 문을 허물어 소통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정신적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일뿐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픈 기억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마음 문을 닫은 채 다음 기억들이 형성된다면 아픔은 계속해서 순환하게 될 것이다.

작품8은 이러한 기억의 정리와 함께 또 다른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 감으로써 물에서의 안락함과 완전한 치유를 바라며 깊은 휴식을 취하는 자아를 나타내 보았다.

작품의 형태는 무한히 뻗어 나가는 유기적인 곡선의 형태로 겹겹이 층을 이룬 물결 안에 나비의 형상을 넣음으로써 물속 깊은 곳에서 쉬고 있는 자아를 나타내었고 작품7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얀 나비의 형태를 넣어 치유되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또 다른 자아를 상징하였다. 색채에 있어서는 적색(Red)과 갈색(Brown)을 사용하여 물의 안락함과 평화로움을 나타내려 하였다.

【작품 9】 흐름의 공간



Jacquard Silk, 산성염료, 구슬장식(Beads), 95×135cm(4p), 2005

【작품 9】 흐름의 공간

재 료: Jacquard Silk, 산성염료, 구슬장식(Beads)

기 법: 납방염, 뿌리기

크 기: 95×135cm(4p)

제작연도: 2005

사람은 본심을 숨기려 한다. 상처도 본심의 일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드러내기 싫어한다. 본심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분명히 상처를 치유받기 원하면서도 그것을 내보이기는 싫어한다. 숨겨져 있어야 할 사실이 내보여지면 그동안 상대와 맺었던 좋은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래서 숨기려 애쓰고 위장을 한다. 연기를 하는 것이다. 안 그런 척, 아는 척, 있는 척, 모르는 척...

지나간 상처(내적 아픔)를 되뇌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것이 괴롭고, 잊고 싶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묻어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감추면 더 고통스럽고 잊는다고 잊혀지지도 않고 묻어둔다고 묻혀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를 직시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

과거 내 모습이 그랬었다. 속으로 쌓여 있던 상처들을 자꾸 안으로 감추려 하였고 상대와의 관계를 인식해 숨기는 것이 제일 좋은 줄로만 알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상대에게서 어느 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직면’이란 말을 듣게 되었고 그 후 오랫동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상처가 되는 사람을 직면하고 그 받은 상처에 직면을 하는 것...

한번 부딪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것과 부딪히며 내 자신이 많이 깨어져 나갔고 더 상처가 되는 것 같기도 했지만...자꾸 부딪힐수록 상처는 아물어 갔다. 그리고 내게 상처가 되었던 사람을 용서해야 했다. 그래야 옛 마음의 음성을 완전히 떨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작품9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온유해질 수 있었던 자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물의 흐름에서 오는 정신적 흐름과 평안함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물에서 느껴지는 평안함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리고 여유를 가져다주며 그 여유로움 안에서 생각의 흐름을 겪게 해주고 희망을 심어준다.

색채에서도 청색(Blue)계통과 황색(Yellow)계통을 함께 사용하여 희망과 따뜻함을 나타내려 하였고 물에서 느껴지는 맑고 투명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나비의 색채는 무채색을 사용하여 흑색(Black)에서 백색(White)으로의 변화를 주었는데 이것은 상처에서 벗어나 변화되어짐을 나타내려 하였다.

이번 작품은 모두 4폭으로 이루어진 대작이다. 한 폭의 그림에서보다 더 커다란 물의 흐름을 느껴볼 수 있도록 4폭으로 제작해보았으나 의도와는 다르게 나온 형태로 인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작품의 밀도와 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던 작업이었다.

Ⅲ . 결 론

예술가중 일부는 자연 속에서 표현 대상을 선택하며, 내적 필연성의 관계 속에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나가며 객관화 시킨다. 또한 작품의 표현에 있어서도 경험이나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

본 연구는 내적상처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를 자연에서 치유방법을 찾아 해결하였던 것을 이미지로 시각화 시키고자 하는데서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표현 소재인 물은 모든 액체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임의성을 지니고 있다.

물은 깊이와 넓이, 흐르고 스며들며 사물의 이미지를 비추는 등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통하여 시, 공간적인 사유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대상이다. 이런 물의 속성들은 자신을 투영하여 볼 수 있는 나르시시즘의 요소와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모성적인 느낌, 깊이와 넓이에서 오는 정신적인 느낌 등 다양한 상상력을 가능하게 해준다. 본인은 작품에서 물의 순환성과 항상성, 흐름에서 오는 느낌을 자신에게 마주하게 함으로써 정화의 느낌과 생명감, 심적 휴식으로 인한 내적 상처의 치유로 이어지게 하였다.

물의 흐름에서 오는 부드러운 이미지는 곡선을 사용하여 율동적인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뿌리기 기법과 드라이 터치를 통해 물의 역동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치유로써의 물의 이미지에 나비의 이미지를 형상화 시켜 자아의 변화를 나타내주었다.

이러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시도한 작품제작의 분석 결과, 곡선의 부드러운 물결의 이미지가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치유로써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는 효과를 주었고, 가볍고 광택 있는 실크를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투명한 물의 속성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었다. 특히 자카드 실크의 사용으로 물결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었으며 화면에 밀도감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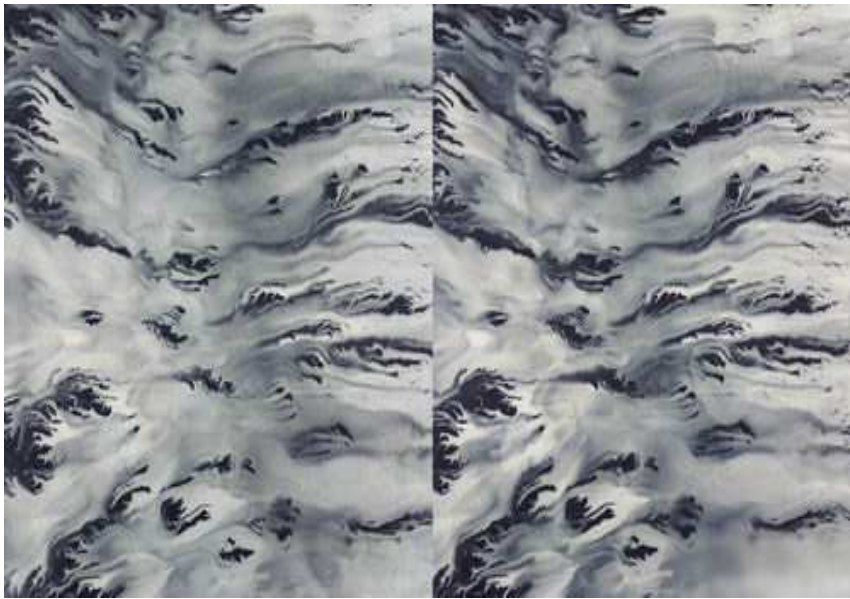
또한 물 이미지 표현을 위한 작품제작 과정에서 물이 이루어낸 형상의 전체적인 화면구성을 통하여 화면 안에서 정신적인 의미로 환원시키고자 하였으나 일괄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 비슷한 구도에서 오는 단순함으로 인하여 물에 대한 상상력이 제한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의 속성이 다양한 만큼 본인의 물에 대한 시각적 조형화의 작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실험 정신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표현 방법을 모색하여 본인의 개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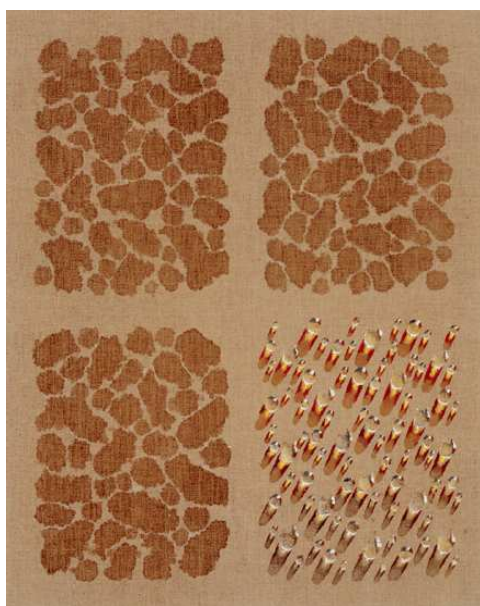
참 고 도 판



【도판 1】 한은선, <물결치다>
한지에 먹, 125×139cm×2, 2003



【도판 2】 한은선, <물결치다>
한지에 먹, 129×115cm×2,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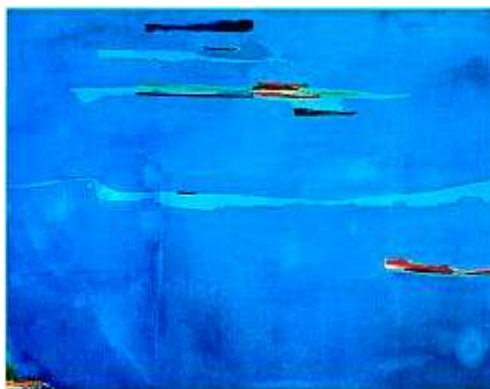
【도판 3】 김창렬, <물방울>
Ink and oil on canvas, 92×130cm,
1987,
private collection, paris



【도판 4】 김창렬, <Reviewing the old learning the
new>
Ink and oil on canvas, 195×160cm, 1979,
private collection, Seoul



【도판 5】 Claude Monet,
<Water Lilies>, Oil on canvas,
87.6×130cm, 1906



【도판 6】 Helen Frankenthaler,
<Ocean drive west 1>, Acrylic on
canvas, 39.5×27.5inches,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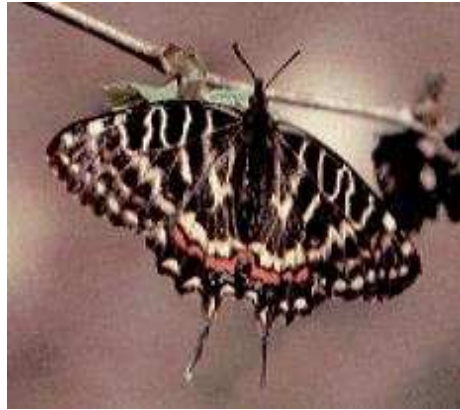
【도판 7】 남해안의 파도



【도판 8】 가츠시카 호쿠사이, <The
Great wave of Kanagawa>,
판화종이에 니시키에, 25×37



【도판 9】곽석손, <축제>
한지에 분채, 162×130cm, 2004



【도판 10】꼬리 명주 나비



【도판 11】사향 제비 나비



【도판 12】제일 줄 나비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외국문헌]

- 김 현, 「몽상시학」, 홍익신서, 1978
- 남상호, 「한국의 나비」, 서울: 대원사, 1999
- 「동아 세계 대백과 사전」 제 12권, 동아 출판사, 1983
- 도올 김용옥, 「노자와 21세기下」, 통나무 출판사, 1999
- 미승우, 「세계의 나비」, 서울: 세계의 나비 전시회 기념출판
- 이원규, 「나비」, 서울: 현암사, 1993
- 조원욱, 「본성회복과 내적치유 훈련」, 서울:도서 출판원, 1997
-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 이가림역, 문예 출판사, 1943
- 데이비드 A. 시맨즈, 「상한 감정의 치유」, 송헌복역, 두란노, 2000
- 크라프트 H. 찰스,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윤호역, 서울: 은성, 1995
- 헨리 나우웬, 「생활한 상기자로서의 사목자」, 이봉우역, 왜관:분도 출판사, 1995
- 헤르만 헤세, 「나비」, 서울: 범우사, 1989

[학위 논문]

- 김문준, “불안 심리의조형적 표출과 치료로서의 접근”, 석사학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5
- 김수정, “자연물에 의한 심상적 표현연구”, 석사학위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3
- 노주선, “물의 은유를 적용한 주택디자인 연구”, 석사학위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이미경, “정신적 안식을 향한 푸른 물의 표현”, 석사학위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여은경, “심상치료 초기 「마음문제점 정리 작업」이 아동의 정서지능(EQ)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4

조선영, “물에 대한 시적심상의 회화적 표현”, 석사학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한우정, “흔적에 대한 물이미지 표현연구”, 석사학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ABSTRACT

A Study on Imagery through Water Image

- Based on the Researcher's Work -

Lim, Su Hyun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People have faced a lot of moments of choice and resulting conflict in life.

At times, those choice have caused unexpected situation, leaving a wound on their mind. Thus, people are necessitated to have inner healing, live a life healing all wounds through many different ways sometimes, and keeping them deep in the consciousness and forgetting them other times.

I, also, needed healing of inner wounds, have cured them through various elements of the nature and have recovered myself psychologically and mentally. For me, the nature gives a chance to heal inner wounds.

It is natural that people, whoever they are, have some affective memory of the nature, such as earth, wind, air, water, and light, etc. Since these matters have been sensed through the five senses, they would generate so stronger images that people could be forced to carve them in memory. Those memory through the nature could make our stability be recovered psychologically and mentally, contribute to renew our strong will,

patience, and beliefs, and help recover positive mind and potentials.

The power of the nature has helped heal my inner wounds, opening up a path to mental recovery of a self. Above all, water, which is the most familiar element and has profound meaning, is closely connected to our life. Also, I think that water is the most familiar object and makes my mind at rest on the one hand, it has various possibility of adaptation on the other hand. So, I would like to describe water as the subject in this study.

Water has been recognized as viable being, with its various aspects endowing itself with mentality and meaning. Also, water is the fundamental matter to which we, human beings, want to belong, and the essence is transformed constantly and is various in a form of wave. Water has the births and deaths of all lives in itself, cycles and varies dynamically, and is the matter that keeps homeostasis itself. Much like the homeostasis that maintains human beings, water serves as an object in which a self could be projected, with the repeating appearance and disappearance of a wave giving a similarity to human feelings.

Based on the background above described, water image represented in my work is a meaningful object as a psychological symbol, not simple physical object.

I have tried to represent my personal affection visually in my work. In the process of work, I made an effort to objectify myself, and the water image represented in my work implies a process of inner healing.

Further, I have analyzed the background and the properties and effects of main stuffs used in my work, and reviewed the resulting new form of image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 guidance of the future work.